

공매도 전면 금지 추진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

- 헤럴드경제 및 한국경제 11월 3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-

1. 기사내용

- 헤럴드경제는 11.3일 「당정, 이달 ‘공매도 전면 금지’ 추진… ‘메가서울’ 이은 두 번째 야심작」 제하의 기사에서
 - “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달 근본적인 제도 개선 전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.”
 - “정부여당은 최근 금융위원회와 협의 끝에 공매도 한시 금지안을 내놓기로 했다.” … “기간 및 대상은 코로나19 당시 공매도 한시 중단 발표 때와 동일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.” 라고 보도했습니다.
- 한국경제는 11.3일 「‘공매도 중단’ 밀그림 나왔다…이르면 다음주 발표」 제하의 기사에서
 - “시스템 개선 전까지 공매도 잠정 중단. 이르면 다음주 주말께 발표할 전망”, “내년 총선까지 6개월 안팎 중단 가능성”
 - “정부와 여당이 공매도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. … 재발 방지 방안이 완비된 이후 재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.”
 - “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장이 열리지 않는 다음주 주말께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.” 라고 보도했습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

☐ 공매도 전면 금지 추진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	책임자	과 장	고상범 (02-2100-2650)
		담당자	사무관	홍연제 (02-2100-2644)